

■ 서울산업보건센터 이전

서울 구로공단내 위치한 협회 서울산업보건센터가 공단내 신축건물로 이전하여, 지난 9월 19일에 유관기관 관계자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식과 함께 개소하였다. 서울산업보건센터의 이전 주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4 코오롱테크노밸리 2층'이며, 대표전화는(02)866-9507~9, Fax는(02)858-2175이다.

■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 「산업위생 핸드북」·「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실무」 배부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회장 이광목)는 회원기관 작업환경측정 담당자의 실력배양 지원사업에 의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999년 연구용역 「산업위생 핸드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행)과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실무」를 별도 인쇄·구입하여, 협의회 회원기관 작업환경측정 담당자들이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9월중 배부하였다.

■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임상병리 검사방법」 제작·배부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회장 김돈균)는 검진담당자와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병리 검사방법」을 9월중 제작, 협의회 회원기관에 배부하였다. 이번 제작된 책자는 2001년도 보건복지부 건강검진사업 및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에 관한 임상병리 검사방법을 종합한 가이드북이다.

■ CLEAN 3D 사업 선포식 개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 활동과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산업재해 증가와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CLEAN 3D 사업 선포식이, 9월 20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노·사·정 대표와 산업재해 예방단체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02년도에 추진되는 정부의 CLEAN 3D 사업은 지난 1993년부터 실시되어 온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산재다발 및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제조사업장 중 47,500개소를 목표로 선정하여 금속, 기계, 화학, 기타제조, 식료, 수송용 기계 등 6개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종합보건관리로 구분 실시하며, 기타 업종 27,500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과 보건의 종합적인 집단형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알려드립니다.

■ 가톨릭대 산업보건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개최 예정

가톨릭대 산업보건대학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산업보건대학원·산업의학센터 주최로 오는 10월 12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가톨릭대의대 의과학연구원 1층 소강당(1002호실)에서 개최된다.

산업보건 교육과 인력양성, 그리고 산업보건사업 문제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일본의 산업의학인력 교육', '산업보건사업의 경제학적 이익'에 관한 특강과 연재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